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31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성령강림절**입니다. 성령충만 받아 증인된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합니다!
5. 성경통독: 제 6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 진행(74일) 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8/2(수) 8시 Zoom 기도회(사도행전 강해)
7. 감사: 오늘 맛있는 점심은 조병기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8. **차세대 사역**: 차세대를 위한 성경공부에 관심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1,158.00)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이진원 유금자, 유혜영,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박병기,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

2023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5권 31호 2023년 7월 30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합심기도 Prayer	다 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유혜영 권사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찬 양 Anthem	찬양단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1:18-25	다 같이
설 교 Sermon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라!”	조병우 목사
봉헌찬송 Hymn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다 같이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이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도회

밤 8:00 (ZOOM)

새 벽 기도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유혜영 권사	조병우 목사	조병기 권사	조민연 박종님
다음주	박동희 권사	박종님 전도사	유금자 권사	



“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 ”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과연 어려운 길일까요? 아니면 쉬운 길일까요? 둘 중에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손해를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놓아줍니까? 사회평론가 닐 포스트만은 '죽어도 쾌락을 놓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책에서 "기독교는 심각한 종교이며 많은 것을 요구하는 종교이다. 기독교가 쉽고 재미있는 종교라고 전해진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종교를 전한 것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16:2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한가지 일이 주어지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쉽든 어렵든 똑같은 헌신의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습니까?

The Christian life - is it tough or easy? Which is it supposed to be? Does our faith in Jesus Christ cause us difficulty, hardship, suffering, and loss? Or does it pave for us an easy road to heaven? In his book 'Amusing Ourselves To Death', social critic Neil Postman wrote, "Christianity is a serious and demanding religion. When it is delivered as easy and amusing, it is another kind of religion altogether." He's right. Jesus Himself said, "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16:24).

That's a clear call for self-denial. Paul was given a task, and he did it wholeheartedly for God's glory, no matter what the cost. Are we willing to do what God has called us to do with the same dedication, whether it is easy or tough?